

## 축 사

김원길 장관(보건복지부)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에 종사하는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호스피스협회의 발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60년대 초반 이후 여러 호스피스 관련 기관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와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등이 조직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한국호스피스협회 역시 50여 개의 산하 단체와 지역별, 직능별 조직을 갖춘 민간단체로 발전해온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스피스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기관 수가 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한국인들이 많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동안 사망하는 국민의 수가 약 25만 명에 달하며, 그 주변 가족이나 친지를 포함할 경우 약 250만 명이상이 매년 죽음의 고통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중 1/4에 달하는 국민이 말기 암과 같은 불치의 병으로 심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고통 속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

고 있습니다.

암환자의 절반이상이 적절한 통증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말기암환자의 사망 전 1년 간 지출되는 의료비의 약 50%가 입종 전 2개월 동안에 지출되고 있어 의료비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호스피스는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꺼져 가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생명존중 활동이며, 말기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를 억제하여 국민의료비의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 및 선진국에서는 호스피스를 말기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호스피스 대상자·서비스·종사인력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호스피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서비스 제공대상자, 시설, 인력, 서비스 내용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립암센터 내에 암환자에 대한 삶의 질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전담 과를 설치하여 관련학회와 함께 의료인력 및 환자를 위한 통증관리지침을 개발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호스피스 표준화 모델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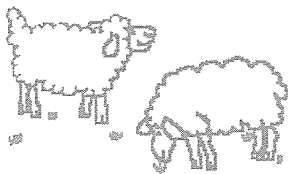
발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수립코자 합니다.

또한 현재 각 시·도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방문간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가암환자 관리사업도 보다 활성화 하여 호스피스활동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 말기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및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 외에도 국민의 인식의 전환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께서 인간의 생명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통한 호스피스 활동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라며, 호스피스의 발전에 있어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호스피스협회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에 맞추어 오늘 개최되는 범국민적인 “호스피스 시민의 날” 행사가 성공리에 마쳐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축 사

이경식 이사장(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친애하는 한국호스피스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를 대표하여 한국호스피스협회 창립10주년을 기념하는 호스피스 시민의 날에 축사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의 단체가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똑같은 한가지 정신 즉 ‘호스피스 정신’으로 함께 모였기에, 저는 여러분들을 한 가족으로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죽음을 앞둔 말기 환우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자는 숭고한 인간애로 모인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말기환우들을 돌보고 그들과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열정이 깊은 존경심을 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호스피스 시민의 날은 말기 환우들의 날이며, 여러분의 날이며 또한 우리 모두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호스피스는 30여 년 전에 시작되어 꾸준히 발전하여왔으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동남아에선 호주 다음으로 빨리 호스피스가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일본, 대만, 싱

가폴, 홍콩 등의 나라보다 뒤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도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호스피스가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제도화를 이루지 못한 데에는 호스피스에 종사하는 저희들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과 단체들이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정부에 건의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점이 부족하였다고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학회를 대표하는 제가 여러분의 시민의 날에 참여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이제부터라도 새로 시작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호스피스를 대표하는 세 단체, 즉 한국호스피스협회, 가톨릭호스피스협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로 정부에 건의하여 하루빨리 제도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숭고한 사랑의 정신으로 모인 우리이기 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느님 앞에는 불가능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으니, 우리 모두가 호스피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서로 합심하여 노력할 때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들의 앞길에는 희망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어떠한 장애가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호

스피스 정신으로 극복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호스피스 시민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NEWS 희망소식

### 소망호스피스

#### 1. 임시이사회

- 일시 : 2001년 11월 17일(토) 오후 6시
- 장소 : 소망호스피스 사무실
- 문의 : 063)433-4171, 5171, 011-9669-0020

#### 2. 자원봉사자 재교육

- 일시 : 2001년 12월 4일(화) 오후 2시
- 장소 : 소망호스피스 사무실

⇒소망호스피스는 전북 진안에 '소망의 집'(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주에 사무실을 개원하여 더 많은 환자들에게 찾아가 섬기려고 임시이사회와 자원봉사자 재교육을 실시합니다.

### 이화여대호스피스

#### 자원봉사자의 날

- 일시 : 2001년 12월 13일(목)  
오후 5시~9시
- 장소 : 이화여대 경영관 1층 홀
- 대상 : 이화여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모두
- 전화 : 02)312-4100, 3277-3286